

News

금융위 "금융지주 제도개선 준비중...빅테크 영역허용 고민"

연합인포맥스

금융위원회, 금융지주사 관련 제도개선 준비 중이라 발표... 빅테크 진출 관련 영역 등 문제의식으로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금융 겸업주의는 계속 논의중인 주제를 언급... 금융혁신 흐름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성 조화를 지향하는 방향

가계부채 규제 통했나?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큰 폭 둔화

이코노미스트

5대 은행의 11월 말 가계대출 잔액 708조 6,880억원으로 10월 말보다 2조 3,622억원 증가... 10월 증가액인 3조 7,888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확연히 감소
업계는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규모 클 것으로 예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4~5%,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때문... 체감 대출 한파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

국민은행, ISA신탁형 국내 상장주식 투자 시행

머니S

은행권 최초 ISA신탁형 국내 상장주식 투자 서비스 시행... 기존과 다르게 국내 상장주식을 새로운 운용자산으로 추가해 고객 선택 운용자산 상품 폭을 넓힐 수 있어...
투자 가능 주식은 코스피200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종목(9월 30일 기준)으로 구성... 오는 2023년 세계 개편으로 상장주식 매매 이익은 전액 비과세 예정

미뤄진 제재심 결과...다시 발목 잡힌 하나은행

아주경제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 진행했으나 결론내리지 못해... 3차 제재심에서 최종 징계 수위 논의 예정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이 이미 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관련 위반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

금감원, 대형 GA 운영실태 평가제 이달 확정할 듯

보험매일

금융감독원, 올 12월 중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 확정안 발표 예정...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
연1회 절대평가 방식... 지난 9월 11개 대형 GA 대상으로 1차 평가 실시... 파일럿테스트 GA 자체평가 신뢰성 이슈로 평가 결과는 통보하지 않기로...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본인가 신청... 내년 초 출범 목표

조선비즈

카카오페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 손보사 본인가 신청서를 1일 제출...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로는 최초
이르면 내년 초 결과 나올 전망... 허가 나는데로 보험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계획... 본인가 받게 되면 기존 보험사들이 다루는 모든 보험 상품 취급 가능

증권사도 '달러 홀릭'...외화예금 역대 최대치 경신

아시아투데이

증권사들, 역대급 규모로 외화예금 확보... 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33개 증권사 외화예금은 총 7조 6,459억원으로 집계...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한 규모
NH투자증권이 전년동기대비 66.7% 증가하며 1조 5,297억원으로 최대 상승폭 기록... 달러 강세 영향으로 외화 예금 쌓은 것으로 분석

토스증권,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 개시

데일리안

토스증권, 해외주식 서비스의 대고객 전체 오픈... 기존 국내주식 거래와 함께 520여종 미국 주식과 ETF에 투자 가능
11월 한달 간 진행된 사전 신청에 약 70만명의 고객 몰려... 2030 MZ세대투자자가 64.2%로 가장 큰 관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